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의 예측 요인 탐색: 원장보고를 중심으로

Exploring Predictors Affecting Difficulties in Operating Childcare Centers: Focusing on Directors' Reports

신나리¹ 김경화² 윤현정³ 노필순⁴ 송지은⁵

Nary Shin¹ Kyung-Hwa Kim² Hyun-Jeong Yun³ Pill-Soon Noh⁴ Ji-Eun Song⁵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and process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hildcare center directors in operating childcare centers and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centers that affect the path.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09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mobile survey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and SEM were implemented using SPSS and AMOS.

Results: Unsupported childcare centers and capacity aggravated structural difficulties in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while the number of enrolled children and the enrollment rate reduced such difficulties that were reported by directors. In the case of labor cost supported centers and childcare centers with a high enrollment rate reported a high level of process difficulties. Because the effect of structural difficulties on process difficulties were significant, the indirect influences of structural difficulties that mediated the influences of gener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n process difficulties were also significant.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difficulties in operating childcare centers c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structure and process aspects.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hildcare centers should be emphasized in a customized way to alleviate such difficulties.

key words difficulties in operating childcare centers, types of childcare centers, enrollment rate, capacity, number of enrolled children

¹ 제1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²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e-mail:peer731@hanmail.net)

³ 공동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⁴ 공동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⁵ 공동저자

울고운 어린이집 교사

I. 서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저출산 심화로 인해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보육에 대한 요구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으로도 향상이 요구된 지 오래다. 이에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재정지원, 평가, 보육과정 및 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원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역

량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육의 질적 향상 또한 도모하기 어렵다(이소은, 정혜진 2012).

운영관리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의 목적이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환경 및 재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숙 등, 2013). 이를 어린이집 맥락에 적용하여 보면,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프로그램, 기타 필요한 특성 등을 조건에 맞게 계획, 조직, 실행 및 평가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어린이집 운영관리라고 할 수 있다(변선영, 황해익, 2019).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기관을 대표하는 총 책임자로, 기관 운영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나종혜 등, 2020). 따라서 원아 모집과 관리, 보육활동 계획과 운영, 종사자 관리, 시설·설비 관리, 사무 및 재정관리, 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조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정정옥, 김승경, 2010).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한 어린이집의 운영 일반원칙의 경우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근거한 운영기준에는 각종 비용과 문서, 안전, 급식 및 위생 등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에 해당하는 제 요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일은 관리자인 원장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업무로, 보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질은 흔히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최혜영 등, 2017). 이중 구조적 특성은 비용,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 자격기준 등과 같이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인 반면, 과정적 특성은 어린이집 구성원의 실제 경험과 상호작용 측면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교사가 실행하는 보육과정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 건강·영양·안전 관련 특성 또한 영유아의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요소로 관리하고 있다.

구조적 특성은 단위 어린이집에서 관리나 조절이 가능하지 않는 섹터인데 반해 과정적 특성은 융통성 있게 변화 가능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 이에 구조적 특성이 과정적 특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권혜진, 이순형, 2001; 이성혜, 김연하, 2013; Goelman et al., 2006; Howes et al., 1992). 즉, 어린이집 운영의 제 영역 또한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김수연, 나종혜, 2008; 이정아, 양연숙, 2019; 한현지, 서영숙, 2013),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과정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과정적 특성은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그리고 안전·건강관리 등으로, 원장은 이들 요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한다(박진옥 등, 2017). 이에 선행연구는 직무능력,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및 원아 모집과 관리, 학부모와의 관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원장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권경숙, 2012; 김희숙 등, 2021; 변선영, 황해익, 2019; 이은주, 박수경, 2018). 그러나 원장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의 수가 적거나 재정 여건이 취약하면 과정적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양미선(2014)은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보육료 수입에 차이를 주며, 이는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급식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영유아 1인

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유희정, 2010). 특히 열악한 재정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의 부족을 넘어서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도 낮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미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 지역, 설립유형, 어린이집 규모, 정원충족률과 같은 어린이집 특성은 과정적인 운영상 어려움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운영상의 구조적·과정적 특성은 단위 어린이집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은 운영여건 및 정원 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인 경우와 정원충족률이 높은 경우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운영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우 교직원의 수급과 관리가 용이하고 보육과정 운영의 수준도 높았다(양미선, 2014). 유재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과 설립유형, 인건비 지원 및 위탁운영 여부, 보육아동의 연령대 등이 원아를 모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밖에도 영유아를 둔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단위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문화시설의 정도, 양육수당의 지원 정도에 따라서도 원아 모집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유재언, 2015b). 이에 단위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 중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측면의 어려움과 과정적 측면의 어려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규모에 따라 인구 및 인적자본의 격차,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우영, 홍성효, 2020).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영유아와 근무 가능한 교사의 충분성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위 어린이집의 소재지역의 규모는 해당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배경 요인이라고 하겠다.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또한 단위 어린이집의 대표적인 일반적 특성으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설립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실체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설립유형의 개수가 7개로 다소 많으므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재정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유재언, 2017).

한편, 단위 어린이집의 정원은 다양한 정부의 질 제고를 위한 규정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영양사와 간호사는 인가정원이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1인, 조리사는 80인 이상 어린이집에 2인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조리사를 1인만 두고 있다. 또한 49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단급식소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육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반면 운영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정원이 많을수록 단독건물 비율, 취약보육 실시 비율 및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양미선, 임지희, 2021), 정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과정적 질 제고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원충족률은 지역사회 내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적

인 배경 요인에 해당한다(차명숙, 2015). 어린이집 일반 특성들보다도 실제 수요를 나타내는 정원 충족률은 어린이집 운영상태를 진단 할 수 있다. 서문희 등(2011)의 연구에서도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하는 학부모의 의사와 실제 이용률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을 수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출생아 수 감소와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가정양육 선호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 증임을 고려하여 볼 때, 정원 대비 현원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유재언, 2015a). 지역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아 신규 및 변경인가를 제한하며 수급을 조절하기에 모집하는 원아 수도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21년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76.1%로 산출된다(보건복지부, 2022). 정원충족률을 결정하는 현원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에 해당하므로, 반 편성, 교사 수와 같은 운영 여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표이다. 때문에 단위 어린이집의 배경 특성으로 정원, 정원충족률과 함께 현원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차명숙, 2015).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관 요인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과 운영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운영자인 원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연구를 위주로 수행되어, 단위 기관의 일반적 특성이 운영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밝힌 연구는 희박하다. 특히 질적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는 국공립,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만을 대상으로 한바(강미숙 등, 2019; 권경숙, 2012; 권경숙, 박지영, 2012; 박윤자, 이대균, 2013; 차영숙, 권미량, 2011),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포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권경숙, 박지영, 2012; 변선영, 황해익, 2019; 유희정 등, 2012), 도시규모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격차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 어린이집의 특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경험하는 구조적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구조적인 어려움을 매개로 과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충북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소재지역의 규모,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정원충족률, 정원 및 현원이 원장이 경험하는 구조적 어려움과 과정적 어려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과정적 어려움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본 연구의 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일반적 특성과 원장이 보고한 운영상의 구조적 어려움 및 과정적 어려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일반적 특성이 원장이 보고한 운영상의 구조적 어려움을 통해 과정적 어려움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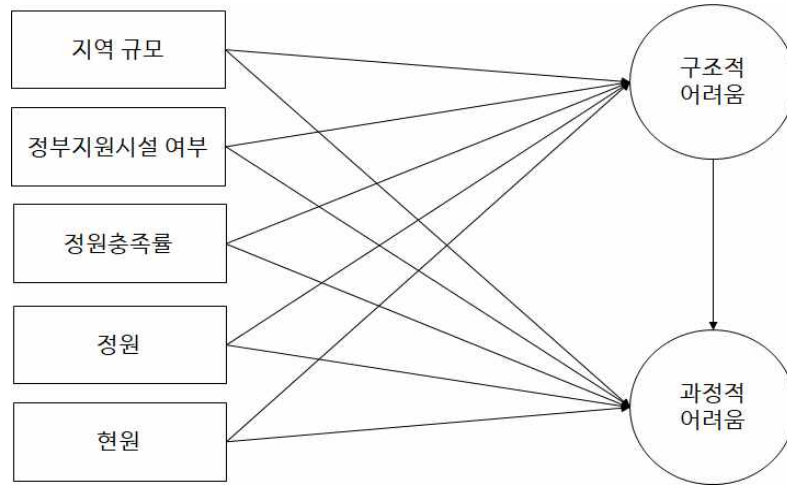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2-2026)의 일환으로 실시된 원장 대상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 309명으로, 97%가 여성이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이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민간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충북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분포와 유사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50.1세로, 40대와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원장의 경력은 평균 12.1년으로 보고되었는데, 분포상으로는 5년 미만의 저경력과 20년 이상의 고경력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최종학력은 대학원이 40.6%, 4년제 대학이 30.4%로, 고학력 응답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09)

구분	n(%)	구분	n(%)
재직기관 유형		최종학력	
국공립	15.9(49)	고졸	5.2(16)
사회복지법인	11.7(36)	2/3년제 대학	23.6(73)
법인·단체등	4.9(15)	4년제 대학	30.4(94)
민간	37.5(116)	대학원	40.8(126)
가정	21.4(66)	원장 경력	
직장	8.7(27)	5년 미만	22.3(69)

표 1. <계속>

구분	n(%)	구분	n(%)
연령		5년~10년	24.6(76)
30세~39세	5.2(16)	11년~15년	24.9(77)
40세~49세	41.4(128)	16년~20년	12.3(38)
50세~59세	43.4(134)	21년~25년	9.4(29)
60세 이상	10.0(31)	26년 이상	6.4(20)
<i>M(SD)</i>	50.1(7.41)	<i>M(SD)</i>	12.1(8.30)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원장이 경험하는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등, 2012) 이후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유해미 등, 2018) 중 어린이집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원장용 설문지에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조사하는 문항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9문항 중 급간식, 시설설비, 행정의 3문항을 제외하였고,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 수급 문항이 추가되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어린이집 운영경력 및 보육경력을 가진 현장전문가 5인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원아 모집, 안전관리, 보육프로그램 운영, 재정, 보육교직원 수급, 보육교직원 관리, 보호자 응대의 7개 항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전혀 어렵지 않음(1점)’부터 ‘매우 어려움(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장이 경험하는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의 구성 요인을 탐색하고자, 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식은 공통요인모형에 해당하는 주축요인법을, 회전방식은 사각회전 방식 중 Oblimin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561.336 ($df = 21$)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KMO 측도값은 .71로 산출되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치와 스크린 도표 결과 7개 문항은 2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산출되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요인 구성을 살펴보면 1요인은 원아 모집, 재정 및 보육교직원 수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해당 특성은 단위 어린이집이 처한 맥락적 기반에 해당하는 바, ‘구조적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보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4개 문항이 해당하였다. 이들 문항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과정적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살

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구조적 어려움은 .68, 과정적 어려움은 .76으로 산출되어, 내적일관성 또한 적절한 수준이었다(표 2 참고).

표 2. 측정도구

요인	문항수	문항내용	Cronbach's α
구조적 어려움	3	원아 모집, 재정, 보육교직원 수급	.68
과정적 어려움	4	보육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보호자 응대, 보육교직원 관리	.76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는 단위 어린이집의 특성 중 소재지역의 규모,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정원, 현원 및 정원충족률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규모는 대도시가 없는 충북의 특성상 중소도시와 농산촌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주소가 동인 경우는 중소도시로, 읍면인 경우는 농산촌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으로 더미코딩한 변인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직장어린이집이, 미지원어린이집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되었다. 특히 충북의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수가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법인·단체등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은 원장이 응답일을 기준으로 보고한 원자료를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원충족률은 정원과 현원 자료를 활용하여 퍼센트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경우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2-2026)의 조사에 응답한 원장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장 대상의 설문조사와 본 연구를 위해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CBNU- 202108-0116, CBNU-202204-HR-0059).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과 응답자인 원장의 인구학적 특성은 총 54개의 문항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는 2021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문항의 적절성과 모바일 조사의 구동 및 인터페이스의 가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 인근 지역인 대전과 세종 소재 어린이집 원장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연락을 통해 충북 소재 어린이집 전수에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조사로 연동되는 QR코드가 배포되었다. 또한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연구설명서와 함께 조사로 연동되는 링크가 SNS 등을 이용하여 배포되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본조사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충북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1,056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응답률은 약 29.3%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산출과 요인분석을 SPSS 26.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에 대한 본 분석은 AMOS 23.0을 이용하여 변인 간의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는 χ^2 와 RMSEA, TLI, CFI 등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으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owne & Cudeck, 1993).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정원충족률의 평균은 77.54%($SD = 21.89$)으로 보고되어 충북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73.80%)과 전국 평균(7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정원의 평균은 약 62명($SD = 46.09$), 현원은 약 47명($SD = 36.79$)으로 50인 이상 81인 이하 중간 규모의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적 어려움 중 원아 모집 어려움의 평균은 3.32점($SD = .77$), 재정의 어려움은 3.14점($SD = .83$)으로 원아 모집 어려움의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의 수준은 보통보다는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보육교직원 수급의 어려움의 평균은 2.99점($SD = .79$)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과정적 어려움 중 보호자 응대의 평균은 2.61점($SD = .79$), 교직원 관리의 어려움은 2.54점($SD = .81$) 안전관리의 어려움은 2.49점($SD = .76$)으로 보통 수준이거나 약간 상회한 반면,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은 2.02점($SD = .66$)으로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예측 변인과 구조적 어려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은 보육교직원 수급 어려움에서만 정적상관($r = .201, p < .001$)을 보였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원아 모집($r = .137, p < .05$)과 재정($r = .338,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정원충족률은 구조적 어려움 하위에서 모두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r = -.475 \sim -.200, p < .001$), 정원은 보육교직원 수급($r = .118, p < .05$)과 정적상관을, 현원은 원아 모집($r = -.287, p < .001$) 및 재정($r = -.180, p < .01$)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정원충족률이 낮을수록 구조적 어려움 전반에 걸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수급은 중소도시보다는 농산촌에서, 정원이 많을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미지원어린이집인 경우와 현원이 적을수록 원아 모집과 재정의 어려움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예측 변인과 과정적 어려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보육프로그램운영($r = -.121, p < .05$)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정원은 안전관리를 제외한 과정적 어려움의 하위변인

들($r = .122 \sim .219, p < .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현원수도 또한 안전관리($r = .214, p < .001$)와 보호자 응대($r = .235, p < .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정부지원어린이집보다 미지원어린이집이 보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려움을 더 겪고, 정원수가 많을수록 과정적 어려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원수가 많아지면 안전관리와 보호자 응대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예측변인 중 정원과 현원의 상관이 .90로 과도하게 높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반적으로 변수를 제거하거나 통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권순동, 2015).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의 정원충족률은 평균 약 77%, 표준편차는 20%를 상회하여, 정원 대비 현원의 수가 적고 어린이집별 편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변인의 상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인인 원아 모집, 재정, 교사 수급, 프로그램 운영의 상관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기관의 규모를 뜻하는 정원과 현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 수를 뜻하는 현원은 실천적, 정책적으로 다른 함의를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정원과 현원 원자료를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한 만큼, 모형에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N = 30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											
②	-.25***	-										
③	-.12*	.19**	-									
④	.12*	-.28***	-.141*	-								
⑤	.05	-.21***	.24***	.90***	-							
⑥	-.02	.14*	-.48***	-.08	-.29***	-						
⑦	-.01	.34***	-.28***	-.07	-.18**	.56***	-					
⑧	.20***	.03	-.20***	.12*	.02	.30***	.38***	-				
⑨	-.03	-.05	-.01	.22***	.21***	.14*	.15**	.25***	-			
⑩	.07	-.12*	-.01	.12*	.11	.06	.11*	.21***	.58***	-		
⑪	-.07	.09	.09	.05	.08	.08	.20***	.45***	.37***	.37***	-	
⑫	-.07	-.01	.11	.20**	.24***	.06	.12*	.21***	.44***	.44***	.51***	-
M	-	-	77.54	62.79	47.27	3.32	3.14	2.99	2.49	2.02	2.61	2.54
SD	-	-	21.89	46.09	36.79	.77	.83	.79	.76	.66	.79	.81

* $p < .05$, ** $p < .01$, *** $p < .001$.

- 주1. ① 지역규모, ②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③ 정원충족률, ④ 정원, ⑤ 현원, ⑥ 원아 모집 어려움, ⑦ 재정 어려움, ⑧ 보육교직원 수급 어려움, ⑨ 안전관리 어려움, ⑩ 보육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⑪ 보호자 응대 어려움, ⑫ 교직원 관리 어려움
- 주2.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기준집단임.
- 주3. 정원과 현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 주4. 운영상 어려움은 4점 척도의 결과임.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2개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FI, TLI와 CFI가 .90 이상, RMSEA와 SRMR은 .05 이하면 우수하고 .08 이하면 적절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검증된 측정모형의 초기모형은 $\chi^2/df = 6.85(p < .001)$ 였으며, NFI, TLI와 CFI는 .90 이하, RMSEA와 SRMR은 .08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지수(M.I)를 검토한 결과, 측정오차 간 공분산이 총 4개 산출되었으며, 이 중 보육교직원 수급과 보육교직원 관리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과 보호자 응대와 보육교직원 관리 측정오차 간 공분산의 수정지수가 각각 35.20과 15.96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두 공분산의 경우 변인의 특성상 측정오차 사이에도 체계적인 변화가 가정되는 만큼, 모형에 공분산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수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chi^2/df = 25.163(p < .001)$ 이었으나, 그 외 적합도 지수는 NFI = .956, TLI = .950, CFI = .974, RMSEA = .065로 나타나, 자료를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NFI	TLI	CFI	RMSEA	SRMR
초기모형	89.023***	13	.843	.816	.861	.138	.091
수정모형	25.163***	11	.956	.950	.974	.065	.06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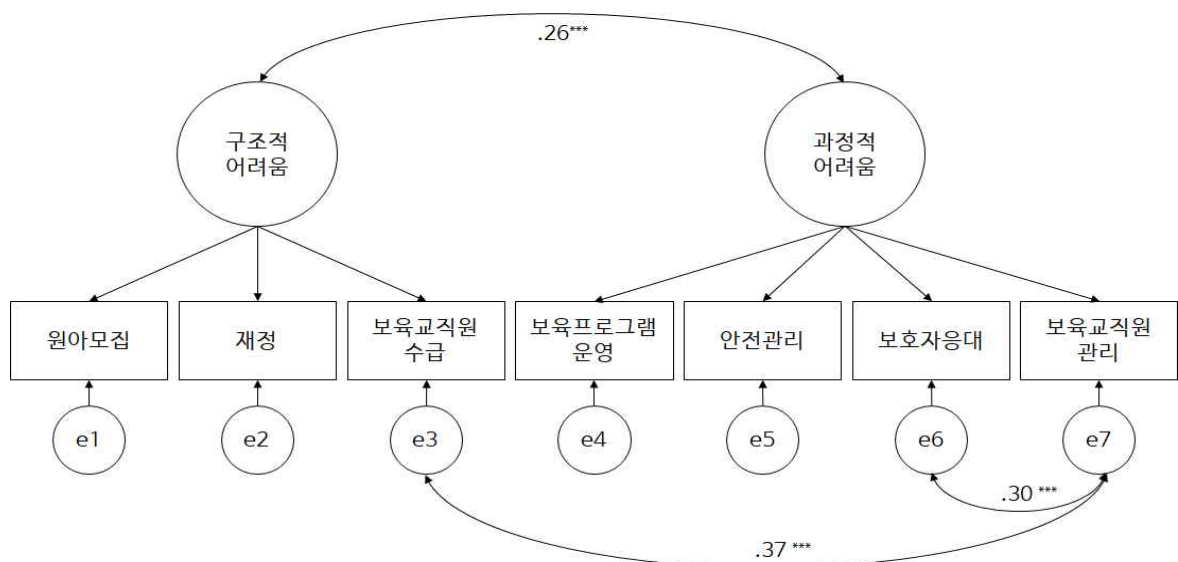


그림 2. 수정된 측정모형

수정된 측정모형의 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가된 공분산인 보육교직원 수급의 측정오차와 보육교직원 관리의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과 보호자 응대의 측정오차와 보육교직원 관리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은 각각 .37과 .30으로,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7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모두 .44 ~ .8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구조적 어려움과 과정적 어려움 간의 공분산은 .26($p < .001$)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에 측정오차 간의 2개 공분산을 가진 구조적 어려움과 과정적 어려움을 구조모형 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본 분석은 구조적 어려움이 과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단위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인 소재지역의 지역규모,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정원충족률, 정원 및 현원을 외생변수로 투입한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측정모형 검증에 근거하여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2개 더 추가하여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좋았으나, RMSEA가 .090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에 수정지수를 살펴보았으나, 모형에 추가하여 적합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경로는 외생변인과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 5개와 구조오차와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 1개로, 모두 모형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유형의 경로였다. 수정지수에 근거한 경로의 추가로 모형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바, 경로의 간명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측변인 중 소재지역으로부터 구조적 어려움과 과정적 어려움으로의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5 참조). 소재지역은 상관분석에서도 운영상 어려움 변인 중 유일하게 보육교직원 수급의 어려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경로 계수는 모형 수정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RMSEA는 .086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RMSEA의 일반적인 기준인 .0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FI	CFI	TLI	RMSEA	SRMR
초기모형	126.213***	36	.927	.946	.900	.090	.068
수정모형	100.905***	31	.940	.957	.924	.086	.064

*** $p < .001$.

RMSEA의 적합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0.08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Browne와 Cudeck(1993)은 RMSEA가 0.05 이하이면 자료에 매우 가까운 수준이며, 0.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0.08~0.10 사이는 보통의 적합도로 볼 수 있고, 0.1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바 있다(강현철, 2013, 재인용). MacCallum 등(1996) 또한 0.08 이하이면 좋은 적합이고, 0.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0.08 에서 0.10 사이는 보통에 해당하는 적합(*mediocre fit*)으로 설명한 바 있다. 종합하면, RMSEA의 경우 좋은 적합도는 아니나 수용가능한 기준의 경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홍세희(2000)는 RMSEA가 0.10인 경우 나쁜 적합도에 해당하나, CFI와 NFI 값이 0.90 이면 적합한 모델로 볼 수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형의 경로별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모두 크게 달라지지 않아 모형 수정으로 인해 적합도는 개선되고 계수 추정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다른 적합도 지수 및 간명성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표 6 참조),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표 6.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경로 계수

경로	초기모형		최종모형	
	β	C.R.	β	C.R.
지역규모 → 구조적 어려움	.05	.78	-	-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 구조적 어려움	.38	6.01***	.36	5.91***
정원충족률 → 구조적 어려움	-.42	-4.11***	-.41	-4.12***
정원 → 구조적 어려움	.39	1.82 ⁺	.41	1.90 ⁺
현원 → 구조적 어려움	-.46	-2.08*	-.47	-2.15*
지역규모 → 과정적 어려움	-.07	-1.13	-	-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 과정적 어려움	-.23	-2.84**	-.21	-2.66**
정원충족률 → 과정적 어려움	.26	2.13*	.26	2.09*
정원 → 과정적 어려움	-.03	-.16	-.05	-.19
현원 → 과정적 어려움	.31	1.27	.33	1.28
구조적 어려움 → 과정적 어려움	.54	4.46***	.53	4.44***
e3(보육교직원 수급) ↔ e7(보육교직원 관리)	.37	6.17***	.37	6.17***
e6(보호자 응대) ↔ e7(보육교직원 관리)	.29	4.48***	.29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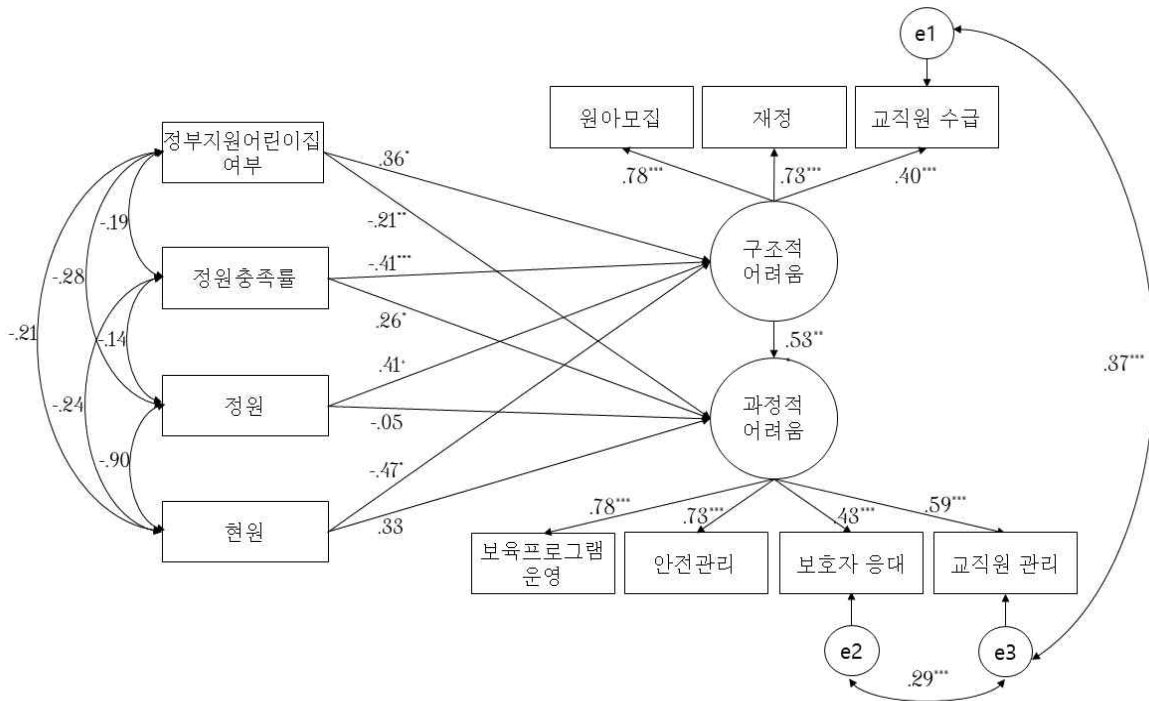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1.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기준집단임.

주2. 외생변수 간 공분산은 생략되었음.

최종모형의 구조모형 결과는 다음의 그림 3에 도식화하였다. 첫째,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구조적·과정적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지원시설보다 미지원어린이집의 원장이 구조적 어려움은 더 높았으며($\beta = .36, p < .05$), 과정적 어려움은 더 낮았다($\beta = -.21, p < .01$). 둘째, 정원충족률은 구조적·과정적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정원충족률이 높을수록 원장이 평가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낮은 반면($\beta = -.41, p < .001$), 과정적 어려움은 높았다($\beta = .26, p < .05$). 셋째, 어린이집 정원은 원장이 지각한 구조적 어려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과정적 어려움에 미친 부적 영향은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원장은 구조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경험하나 과정적 어려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어린이집의 현원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과정적 어려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

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즉,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증가할수록 구조적 어려움은 낮아졌다($\beta = -.47, p < .01$). 마지막으로,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상의 구조적 어려움을 높게 경험할수록 과정적 어려움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3, p < .0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기준집단임.

그림 3. 최종모형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관련 요인들이 구조적·과정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95% 신뢰구간에서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beta = .19, p < .05$), 정원충족률($\beta = -.22, p < .01$), 정원($\beta = .22, p < .05$) 및 현원($\beta = -.25, p < .05$)이 구조적 어려움을 통해 과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비해 미지원어린이집인 경우와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그리고 정원이 많을수록, 현원은 적을수록 운영상 구조적 어려움이 높아지며, 이렇게 증가된 운영상 구조적인 어려움은 과정적인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최종모형 중 간접경로의 효과 분해

간접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하한계	상한계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 → 과정적 어려움	-.02	-.21*	.19*	.10	.33
정원충족률 → 과정적 어려움	.04	.26**	-.22**	-.39	-.11
정원 → 과정적 어려움	.17	-.05	.22*	.01	.44
현원 → 과정적 어려움	.08	.33	-.25*	-.52	-.01

* $p < .05$, ** $p < .01$.

주1. 각 효과는 표준화된 계수(β)임.

주2.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상한계와 하한계 산출은 95% 신뢰구간이 사용되었음.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관리자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책임이 있는 원장을 대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구조적 어려움과 과정적 어려움으로 구분하고, 이들 어려움에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 요인은 무엇인지, 어린이집 일반적 특성이 구조적 어려움을 통해 과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 중 일부는 구조적 및 과정적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조적 어려움을 매개로 과정적 어려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4점 척도의 결과인 구조적 어려움에 해당하는 항목은 3점에 근사하거나 초과하여,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적 어려움의 평균 점수는 2점 초중반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과정적 어려움에 비해 구조적 어려움을 높이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보육실태조사(유해미 등, 2018) 결과에서도 과정적 어려움에 비해 구조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것과 일관된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유일하게 3점을 상회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3.22점),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이 전 영역에 걸쳐 운영상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수요 감소와 같이 급격한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3년간 주기적으로 조사한 보육실태조사 결과, 원장이 보고하는 어려움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해미 등, 2018, p. 191). 결과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 증가, 제4차 표준보육과정 도입, 보육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시각 변화 등 보육사업 제 영역에 걸친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없이 관련 규제만이 강화되는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을 살펴보면, 먼저 구조적 어려움의 경우 정부지원어린이집 여부와 정원충족률, 정원 및 현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지원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보다 구조적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지원어린이집 대상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비해 바우처 방식의 아동별 보육료를 지원받는 미지원어린이집이 재정적인 취약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보육교사 수급과 원아 모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미지원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고 현원 수도 적어 수입은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 등 운영과 관련된 지출은 동일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격차를 발생시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적 어려움의 경우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미지원어린이집에 비해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미지원어린이집의 취약한 재정적 어려움은 교사처우와 영유아의 교육적 지원을 포함한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차영숙, 권미량, 2011).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의 주요 요소인 참여성, 투명성, 공개성의 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양미선, 2014).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형으로(이정원 등, 2018), 높은 기대로 인해 실제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미지원어린이집의 이용 만족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해미 등(2018)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비해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안전관리, 보호자 및 교직원 관리에 있어서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나 실행 기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지원어린이집의 과정적 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관리감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오후일과에 포함되었던 특별활동 뿐 아니라 담임교사가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용 외부교재를 구입하여 진행하는 특성화활동이 추가된 것도 과정적 질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원충족률이 높을수록 원장이 느끼는 구조적 어려움은 낮은 반면 과정적 어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충족률은 인가정원 대비 현원의 기준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의 수급 현황을 판단하고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의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유재연, 2015a). 즉, 정원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은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 입소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정원충족률은 보육료 등의 수입에 크게 차이를 주므로(양미선, 2014), 재정적인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 또한 예상된 결과이다.

이는 현원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어려움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원 내 현원수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서문희 등, 2013). 어린이집 현원수는 인건비 산출기준이며 사전에 설정된 정원에 맞춰 반별 보육정원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기에(이재성, 김재일, 2014), 실제 구조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보육사업의 특성상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특성이다.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원아 모집은 교직원 채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정원충족률이 높고 현원수가 많을수록 과정적 어려움 또한 심화된다는 결과는 미지원어린이집의 취약한 재정적 어려움이 낮은 교사 처우와 부족한 영유아 대상의 교육적 지원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기존의 관점(장영인, 2015; 차영숙, 권미량, 2011)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미지원어린이집에 비해 과정적 어려움을 높게 보고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지원 여부, 정원충족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이 우수한 경우 평가인증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차명숙, 2015), 이들 어린이집에서 과정적 질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과 기대가 높아 이로 인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의 예측변인을 탐색한 유재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일반적 특성 중 정원충족률이 가장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예측변인 중 지역규모는 운영상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원 또한 과정적 어려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구조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수준 또한 .10으로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의 경우, 중소도시와 읍면 모두 민간어린이집은 30%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중소도시는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읍면 지역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없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p.14).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규모는 크나 소재한 위치나 낙후한 시설로 인해, 설립유형 중 운영상의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유해미 등, 2018),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폐원이 가속화되는 점으로 보아, 최근 운영상 어려움과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영상 어려운 대표적인 두 유형의 어린이집이 소재지역과 정원 측면에서도 서로 상이한 집단에 각각 분포하여, 해당 특성의 통계적인 영향력을 제한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밝히는 데 있어 설립유형, 정원충족률 등이 초점이 되어왔다(강미숙 등, 2019; 권경숙, 2012; 권경숙, 박지영, 2012; 박운자, 이대균, 2013; 유재언, 2015a; 유희정 등, 2012). 그러나 유재언(2015b)은 정원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쇄위험에 처한 어린이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지역규모 및 정원뿐만 아니라 개별 어린이집까지 분석단위로 포함하여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 모형에서 투입된 예측변인 모두가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매개변인인 구조적 어려움이 과정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효과의 방향이 모두 직접효과의 방향과 반대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직접효과의 방향과 매개효과의 방향이 상반되는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모형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김하형과 김수영(2020)은 이같이 매개모형에서 비일관적 경로계수를 포함하는 ‘비일관적 매개모형(inconsistent mediation)’의 발생 이유는 이론적인 비일관성을 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변수 이면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작용이 이러한 비일관적인 매개모형을 도출하는 핵심이며, 이 점을 연구의 주된 의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정원충족률이 높으며, 현원이 많아 구조적인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어린이집이 과정적인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덜 경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 높은 수준의 과정적인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운영 여건이 좋은 어린이집이 책무성에 근거하여 높은 과정적 질에 대한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Kühnel 등(2009)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비일관적인 모형의 대표적인 예인데(김하형, 김수영, 2020), 이스라엘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몰입과 업무열의를 살펴본 결과 직무에 몰입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열의 또한 높아진다는 직접효과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휴가 중의 업무분리 정도를 매개변인으로 포함한 결과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업무분리가 덜 된 반면 업무분리가 잘 될수록 휴가를 다녀온 후 직무열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일관적인 매개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ühnel 등(2009)은 직무몰입 정도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운영 여건이 좋은 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구조적인 환경에서도 과정적 질에 대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들 어린이집이 신뢰받는 교육 현장이라는 자긍심과 보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에 대한 불안감이나 위탁 기준에 대한 모호함, 자율적으로 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의 특수성이 높은 과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윤경, 권경숙, 2013). 그러나 구조적 어려움이 과정적 어려움에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결과적으로 과정적 어려움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은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 특히 과정적 어려움에 양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현장의 과정적 질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과 정책은 이러한 단위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될 때 실효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지역규모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선행연구가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도시 및 농산촌 소재 어린이집의 실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도시와의 비교가 불가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규모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가 수행된 시기는 코로나 19가 유행한 시기이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겪게 된 원아 모집과 재정상의 어려움 등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우려 정도, 코로나 19 관련 지자체별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예측요인 중 정원과 현원의 상관관계가 과도하게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예상되었다. 다행히 실제 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과대추정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1.0 이상의 표준화경로계수 산출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구조적 어려움과 과정적 어려움으로 구분되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운영의 어려움이 영유아, 영유아의 가정, 보육교직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방안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미숙, 이승은, 송승민, 김수지 (2019).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인간발달연구**, 26(3), 117-137. <https://doi.org/10.15284/kjhd.2019.26.3.117>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 권경숙 (2012). 국공립어린이집 초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장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2(6), 191-215.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6.008>
- 권경숙, 박지영 (2012).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린이집 운영 과정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27.
- 권순동 (2015). SEM에서 위계모형을 이용한 다중공선성 문제 극복방안연구: 소셜커머스의 재구매의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지**, 22(2), 149-169. <https://doi.org/10.21219/jitam.2015.22.2.149>
- 권혜진, 이순형 (2001).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2(4), 201-212.
- 김수연, 나종혜 (2008). 보육시설장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45-56.
- 김우영, 홍성호 (2020).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1(1), 75-91.
- 김윤경, 권경숙 (20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원장들의 고충과 보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45-71.
- 김하형, 김수영 (2020). 비밀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 김희숙, 이유미, 김선정 (2021).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쉽과 자아존중감이 원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671-683.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4.671>
- 나종혜, 신나리, 권연희, 배선영, 손승희 (2020).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학개론**. 파워북.
- 박윤자, 이대균 (2013). 위탁 어린이집 임용원장의 어려움과 대처하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151-177.
- 박진옥, 양승희, 김의향, 서혜전 (2017. 3).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교사지원정책의 고찰 및 제언**. 한국보육지원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변선영, 황해익 (2019).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091-1112.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0.1091>
- 보건복지부 (2022. 4). **2021년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2년 6월 10일 인출
- 서문희, 도남희, 송신영 (2011. 12). **어린이집 설치·인가실태와 개선방안**.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104>에서 2022년 7월 19일 인출
-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연구보고 2013-39)**.

-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873>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서영숙, 서혜전, 김영명, 채혜선, 김진숙 (2013). **보육학개론**. 양서원
- 양미선 (2014).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31-46. <https://doi.org/10.14698/jkccce.2014.10.3.031>
- 양미선, 임지희 (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2-21)**.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752>에서 2022년 7월 12일 인출
- 유재언 (2014). 지역사회 영유아 지원서비스가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23-152. <https://doi.org/10.15709/hswr.2014.34.4.123>
- 유재언 (2015a).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변화. **육아정책연구**, 9(1), 95-118.
- 유재언 (2015b).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과 수급조절 방안. **보건사회연구**, 35(4), 462-490. <https://doi.org/10.15709/hswr.2015.35.4.462>
- 유재언 (2017). 2015학년도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 분석을 통한 월별 통계자료 제공 필요성 논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7-37. <https://doi.org/10.14400/JDC.2017.15.3.27>
- 유해미, 강은진, 권미경, 박진아, 김동훈, 김근진, 김태우, 이유진, 이민경 (2018).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어린이집조사 보고**.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1590>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유희정 (2010. 3). **서울형어린이집의 재정지원과 운영실태**. 한국보육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유희정, 이연승, 강민정 (2012).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 및 교사처우 실태에 대한 분석: 부산광역시 보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4), 181-202.
- 이성혜, 김연하 (2013). 어린이집 교육풍토,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보육과정 운영의 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75-93.
- 이미화, 서문희,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권미경, 양미선, 손창균, 김경미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1423>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이소은, 정혜진 (2012). 근무기관유형과 직무만족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소진. **아동과 권리**, 16(4), 701-730.
- 이은주, 박수경 (2018). 초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451-477. <https://doi.org/10.20437/KOAECE23-1-18>
- 이재성, 김재일 (201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효율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8(3), 355-383.
- 이정아, 양연숙 (2019).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느끼는 운영의 어려움.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7(2), 69-100.
-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윤진, 윤지연, 염혜경 (2018).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가구조사 보고**.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1591>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장영인 (2015). 민간어린이집 보육재정지원에 대한 쟁점 연구: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논의의 배

- 경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5, 53-79
- 정정옥, 김승경 (2010). 보육시설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보육시설장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4, 285-306.
- 차영숙, 권미량 (2011).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한 노력. **생태유아교육연구**, 10(3), 23-47.
- 차명숙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배경요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199-213.
- 최혜영, 박진재, 신나리 (2017.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관운영정책의 고찰 및 제언**. 한국보육지원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한현지, 서영숙 (2013). 어린이집 운영관리 과정에 나타난 원장의 의사결정.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47-16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Browne, M. W.,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Sage.
- Goelman, H., Forer, B., Kershaw, P., Doherty, G., Lero, D., & LaGrange, A. (2006). Towards a predictive model of quality in Canadia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3), 280-295. <https://doi.org/10.1016/j.ecresq.2006.07.005>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2), 449-460. <https://doi.org/449-460.10.1111/j.1467-8624.1992.tb01639.x>
- Kühnel, J., Sonnentag, S., & Westman, M. (2009). Does work engagement increase after a short respite? The role of job involvement as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2(3), 575-594. <https://doi.org/10.1348/096317908X349362>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https://doi.org/10.1037/1082-989X.1.2.130>

논문투고: 22.06.09

수정원고접수: 22.07.27

최종게재결정: 22.08.10